

# LTE 무한요금제...실제는 '제한요금제'

### 이통3사 요금제 분석...4명 중 1명 꼴 "초과요금 낸 경험"

### 소비자원 "무제한' 소비자 오인 우려...제한조건 알려야"

LTE 무한 데이터 요금제 대부분이 '무한'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기본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이통통신 3사(SKT·KT·LGU+)와 알뜰폰 3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컬즈)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일부 이통사는 추가로 주는 데이터도 LTE가 아닌 400kbps로 속도를 제한했

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월 기본제공량 이후에도 1일 1~2GB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그 외 추가 사용 데이터도 유효속도로 제공하는 등 일반 고객이 '무제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는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독점적 이용을 막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요금인가 과정에서 미래부도 공감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전화나 15\* \*이나 050 \*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의

통화량은 50~300분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소비자 1054명에게 스마트폰 요금제 등에 대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무한요금제를 사용하는 428명 중 과반수(57.3%)가 무한요금제의 제한조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무한요금제 사용자 4명 가운데 1명(24.1%)은 이러한 제한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요금을 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77.3%는 가입 당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적이 있으며, 19.

6%는 요금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요금제도 전반적으로는 이통 3사의 요금보다 저렴했지만,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의 일부 요금제의 경우 이통 3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무로부가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소비자원은 기본 제공량만을 단순 비교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스마트폰 요금제가 소비자의 실제 사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데이터를 500MB 이하 또는 15GB 초과해 사용하는 소비자 비율은 각각 22.6%, 1.7%이지만 출시된 요금제 비율은 11.7%, 12.6%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카톡 전용버튼 장착 폴더형 스마트폰 나온다

### LG전자, 40만원대 '와인스마트' 내일 출시

카카오톡 버튼을 따로 갖춘 폴더형 스마트폰이 나왔다. <사진>

LG전자는 2007년 첫 출시된 이래 '호도폰'으로 호평받은 '와인폰' 시리즈의 6번째 제품 '와인스마트'를 이통통신 3사를 통해 26일 출시한다.

와인폰은 국내 시장 누적 판매량이 500만대가 넘는 스테디셀러로, 새 모델은 기존의 폴더치 화면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 사용자를 위해 폴더 형태를 갖췄다.

특히 모바일 메신저 사용을 원하면서도 조작을 어려워하는 사용자를 배려해 카카오톡 물리버튼을 탑재했다. 중장년층의 시력을 고려해 화면에 앱을 가로세로 각 3줄씩 배열하는 확대 기능을 적용하고, 노약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 기능을 강화했다.

제품 출고가는 4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반쪽 단통법 시행되나

### 내달 1일 시행 앞두고 시장 혼란 가중 예상

왜곡된 이통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제를 제외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업체별로 각각 공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분리공시제 제외로 단통법이 '반쪽'으로 전력함에 따라 법 취지가 퇴색하는 것은 물론 시장

에서의 약발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마지막 화두 분리공시제 결국 '단통법' 발목=분리공시제는 지난달 초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하부 고시안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때부터 논란이 된 사안이다. 단통법 12조는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 및 출고,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조사별 장려금의 대

외 공개 금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법적인 논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통시장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분리공시제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이처럼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 고시가 서로 상충한다는 점이 결국 이날 규제위 심사를 넘지 못한 주원인이 됐다. 회의에 참석한 법제처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갱님' 양산하는 기형적 단말기 유통구조 바뀔까=규제개혁위는 분리공

시제를 제외한 단통법의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3년 후 재검토'라는 단서를 붙여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일몰기간을 설정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단통법은 보조금 중심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꾸고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계 통신비를 낮춘다는 목표 아래 제정됐다. 인터넷상에서는 제값을 주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산 사람에게 대해 '호갱님(호구 고객님)'이라는 별칭을 붙인다. 단말기 가격이 지역이나 대리점·판매점, 구매시기에 따라 많게는 7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 간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는 불법의 선을 넘나드는 불투명한 보조금제도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 앱

## 45억 아시아인축제 골라보세요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인천아시아게임이 막을 올렸다. 2002년 부산 대회 이후 12년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인게임을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는 앱을 소개한다.

- ◆아프리카TV
  - / 제작 : apple
  - /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번 인천아시아게임은 아프리카TV와 네이트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아프리카TV는 인기BJ들의 중계, 국가대표BJ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인천시 통역비서
  - / 제작 : CSLi
  - /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인천을 방문해서 외국인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앱이다. 앱 기능을 통해 대화하듯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9개 언어의 회화검색을 할 수 있다.
- ◆아시아게임
  - / 제작 : Jaeho Lee
  - /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시아게임에 모든 경기종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종목의 감성적인 소개 아이콘과 더불어 위키백과와 연동된 종목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DESIGN ZOOZ 제공:디자인주소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 "스마트 손목시계, 2년 후 손목 착용기기 40% 차지"

### 스마트밴드·팔찌 등과 경쟁

스마트 손목시계 시장이 점차 성장하면서 2년 후에는 손목에 착용하는 기기의 40%를 차지할 것이라고 가트너가 최근 전망했다.

현재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 시장은 스마트밴드 또는 스마트팔찌로 불리는 제품군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스마트폰 제조사 상위 10곳 중 2곳만 스마트 손목시계를 출시했으나 올해

는 7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정도로 스마트 손목시계가 대세가 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안젤라 맥킨타이어 가트너 책임 연구원은 "애플이 최근 공개한 애플워치가 내년에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 관심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애플워치는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고가 전략을 펴면서 시장점유율은 제한적인 것이지만, 디자인과 사용자 환경(UI)에 신경을 쓴 만큼 많은 사용자를 모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b>광남기업</b> 북구 두암동 849-26 두암시장입구 사시, 유리 조립식판넬 대표 이경규 ☎062)263-0036	<b>우먼로드</b> 중흥3동 286-36번지 (동부시장입구중흥3동사무소아래) 혼수전문, 이불, 커튼, 전문매장 ☎062)524-8737	<b>동양철학원</b> 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옆길) 사주,작명,개명,신수 궁합,택일,개인지도합 ☎062)224-7687	<b>토산철학원</b> 북구 두암동 837-19 두암에덴병원정문옆 이름,감정,사주,작명 궁합,택일,진로상담 대표 이태연☎010-4106-5055	<b>아담카페식당</b> 동구천변로 405-1(이천번지리신주소에서클박스쪽) 오리로스, 오리불고기 삼겹살, 목살, 주물럭 대표 김성훈 ☎062)224-0102	<b>두걸음직업소개소</b> 북구 두암동 824-2번지청사거리부근 근로자수시모집 (현장근로자, 여성근로자) 대표 조창욱 ☎062)263-3862
<b>커피홀릭</b> 동구 충장로 3가 11번지 이프유정문건너편2층 직접볶아신선커피 대표 김현오 ☎062)229-0230	<b>신신예술의집</b>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b>고전방</b> 동구 궁동 34-4번지(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b>이가회관</b> 동구 금남로2가 충장동사무소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탕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대표 이복례 ☎062)224-1541	<b>TV스토리</b> 신안동 481-38번지 소형에서대형까지최고의품질 검품없는가격특가판매50%세일 1년무상A/S ☎010-5540-4568	<b>우리웃빛고을</b> 동구 궁동62-3번지 한복맞춤전문 대표 신진아 ☎062)227-6730
<b>커피홀릭</b> 동구 충장로 3가 11번지 이프유정문건너편2층 직접볶아신선커피 대표 김현오 ☎062)229-0230	<b>신신예술의집</b>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b>우리밀빵</b> 동구 금남로하삼가 E동51호 (분수대빌터부근)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사회적기업 대표 박연옥 ☎062)222-1151	<b>오리백년(두암직영점)</b>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건너편 오리한방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웃닭, 오리장어탕 ☎062)401-5253	<b>미정</b> 동구 금남로 2가 (구)동구청뒤 (옛날구미항) 계절생선회,일식전문 대표 김용범 ☎062)236-3177	<b>샤브향광주문화전당점</b> 동구 광산동 79번지 2층 월남쌈구이 샤브샤브 베트남쌀국수 전문점 ☎062)229-0963
<b>광주화랑</b> 궁동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b>박당화랑</b>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b>석당화랑</b>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b>다나베움므</b> 동구 남동 169-4 (충장로1가입구민속촌옆) 호남최고 맞춤정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b>호선갤러리</b> 동구예술의거리10번지 미술품전시및대관 대표 부영진 ☎010-5680-1188	<b>세정아울렛무크(상설점)</b> 서구 치평동 1326 세정아울렛 2층 258호 10~20% 추가할인(일부품목제외) 디자인 및 제품품질향상, 사은품증정 ☎062)370-9258